

sometimes unbearable position of having on the one hand, to respond to the political injunction of justifying the financial support allocated to culture in showing that many people from many different backgrounds are visiting the museums and, on the other hand, the desire to transform those institution and their discourses in criticizing the cultural status-quo and in making cultural institutions places where agonistic pluralism can be applied (transforming them into spaces where new democratic forms can be experienced before their application are extended in other parts of society). The museums or art centres can thus become a laboratory to transform not only culture but also the broader society.

Microsilons, January 2019
Geneva, Switzerland

커먼의 학교(School in Common)는
무엇인가?: (커먼을 위한 중심적 형태로서)
배움의 컬렉티브적 시간에 대해

로사 파르덴코퍼르

A School in Common? On Collective
Moments of Study as a Core Form of
Commoning

Rosa Paardenkooper

Anastasia Mityushina
Curator of Public Programs, Garage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astasia Mityushina received her MA in art history from the Moscow State University. Her main subjects of research and interest are social engaged art, methods of informal education,

and time-based art practices. She has curated exhibitions at Garag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at include *Co-Thinkers* (2016), together with Maria Sarycheva; *Infinite Ear* (2018), together with Council and Garage Curator Iaroslav Volovod. She is one of the curators of the upcoming Garage Triennial 2020.

오래 전에는 거대한 농지였던 지역에 위치한 한 대규모 농가는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방치됐었다. 신도시의 주택가 라이드쉬 라인의 중심에 자리한 테르베이데 농장은 위트레흐트 지역 농업 분야의 현존하는 유산과도 같은 곳이다. 2017년 라이드쉬 라인 지역 기반의 다학제적 예술가 그룹인 아웃사이더스(The Outsiders)와 위트레흐트의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커먼을 향하여(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이하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팀은 테르베이데 농가에 접근할 기회를 얻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다년간의 프로젝트이자 연구 단체인 생태학적(언)러닝 센터(Center for Ecological (Un)learning)와 함께 위트레흐트 시의 새로운 터에서 예술 생태학적 실천을 위해 예술 활동 및 공동을 위한 활동을 주최하거나 조직해왔다. 이 센터는 아웃사이더스와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가 함께 조직한 장기적 공동 이니셔티브이다.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는 약 30년 동안 위트레흐트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동시대 미술 기관으로, 2020년에 30주년을 맞이한다.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는 수년 간의 예술 연구 프로그램 «커먼을 구성하기»(2013~2016)와 제도적인 틀 안에서 혹은 그 장벽 너머에서의 집단성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2018년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커먼을 향하여”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했다. 기존 기관 명칭이었던 ‘Casco Office for Art, Design and Theory’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 모두를 탈바꿈했다.

그 이유는 반 세기 이상의 시간 동안 돈, 자본, 개인주의의 가치가 우세해지면서 생물학적 다양성과 기후 변화의 문제가 점점 더 명백하게 다가오고, 사회 불평등, 분열, 불안정한 삶의 문제가

오늘날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다는데 있다.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는 돌봄과 나눔의 즐거움, 협력하고, 함께 살고, 일하는 다른 가치들을 믿는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는 이러한 이유로 예술과 커먼을 한데 모았고, 예술을 통해 커먼을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고자 한다.

이는 연간 프로그램으로 몇몇 «커먼의 학교» 세션과 함께 공유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동의 학습과 계획, 연계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전시 두 개, 커먼을 위한 예술 기관의 연례 모임 및 퍼블릭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를 둘러싼 네 벽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 기획됐다. 우리는 이 여러 활동의 맥락에서 커먼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감각을 제기하고, 새로운 형태와 상상을 불러올 수 있는 예술과 함께 작업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것을 위협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나 사람들과도 같이 활동한다.

우리가 의미하는 ‘커먼’은 스스로 조직된 공동체에 의해 함께 운영되거나 만들어진 문화에서부터 자연의 자원까지 포함한다. 이 공동체 안의 관계들은 유지, 돌봄, 나눔, 협력과 같은 가치가 배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서부터 일터에 이르기까지, 농장에서 자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의 범위를 모두 아우르는 맥락에서, 가능한 사회적 변화의 나침반으로 커먼을 이해할 수 있다. 커먼은 국가와 시장의 간극을 메우고 그 너머의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테르베이데 농가의 작업은 아웃사이드스가 다른 예술가들, 이웃들과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의 ‘시프팅(shifting)’팀과 협력하여 진행했다. 이 작업은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의 기관 밖 공공 활동 중 하나로, 예술을 통해 커먼에 활기를 불어오고자

했다. 이것은 어떻게 예술과 예술가들이 자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입증한다. 나아가 이 규칙과 훈련의 한계를 넘어 예술이 어떻게 질문을 제기하고, 관계하고,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시야, 감각, 느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언어와 도구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짧은 시간 동안 라이드쉬 라인의 주민과 예술가, 지역 커뮤니티가 모여 그 지역의 생태계, 식품 생산, 유산, 농업사에 관한 활동을 스스로 조직하고 개발했다. 이는 테르베이데 농가를 재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월별로 모였던 로컬 맥주 브루잉 모임, 함께 놀이터를 만들거나 ‘고고학’에 대한 동시대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워크숍, 빠르게 도시화되는 주변 지역에서 약초와 버섯을 따오는 활동, 빈티지 옷 가게 운영, 악기 만들기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참여한 각 개인과 팀은 농가에 출입 가능한 시간에 이곳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를 하며, 손님을 초대하는 등 각자의 방식대로 이 농가를 돌보는데 손을 보탤다.

예술과 커먼의 사례로서 다루는 테르베이데 농가의 이야기는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조와, 집단적인 연구 및 (탈)학습을 위해 제안한 방법을 함께 직조하기 위한 실과 같다. 이 이야기는 이 농가에서 진행한 공공 활동부터, 라이드쉬 라인의 공동 멤버와 함께 기획하여 위트레흐트 시 중심에 위치한 카스코의 전시 공간에서 열렸던 전시 «에르프후트(농업적 유산과 토지 이용)(Erfgoed(Agricultural Heritage and Land Use))»(2018년 9월 15일~10월 21일)에 이르며 이번 발표에서는 그간 있었던 컬렉티브 연구와 배움을(혹은 배운 것을 잊어버리기) 위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의 첫 «스터디 미팅(Study Meeting)»에서 라이드쉬 라인의 구성원들은 이 농가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이곳에서 실행 가능한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이드쉬 라인 지역 역사 협회의 전문가들, 그 지역의 연구자들, 지방 자치 단체 사람들을 포함한 참여자 모두가 모여 미래를 위한 자신들의 바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던 자리였다. 이 모임은 함께 연구하고, 사변하고, 계획하는 작업을 감행하기 위한 여러 공적인 순간을 위한 초시가 됐다. 이곳에서의 연구는 컬렉티브적이고, 비평적이고 구축적일뿐만 아니라 전공에 기반하지 않은 형태의 배움과, 이미 배운 것을 취소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예술적 실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예술적 실천에 의해 가능한 활동이며,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삶과 방법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커먼’을 위한 중점적 형태이다.

‘테르베이데 농가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 이후로 «스터디 미팅» 프로그램은 “커먼의 학교”로 그 이름을 바꿨다. 이 이름은 큐레이터이자 에듀케이터인 알런 크솔(Alen Ksoll)과 내가 개발한 프로젝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로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존재하고자 설립한 자립학교로 시작하여 지금은 예술과 커먼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과 고민에 대한 컬렉티브의 연구와 기획을 위해 분기별 모임의 형태를 취한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 현장 안팎의 여러 공동체와 작가(들)과 함께 개발한 것이다.

«커먼의 학교»에서는 각 세션에서 아래와 같은 개념들을 다루었다. 저자이자 학자인 파스칼 길렌(Pascal Gielen)과 출판사 발리즈(Valiz), 그리고 이후 합류한 예술가 징 Y. 응(Jing Y. Ng)과 송 이(Song Yi), 큐레이터이자 학자인 조에니 리벤 텡(Zoénie

Liwen Deng)과 함께 ‘커먼의 미학(commonist aesthetics)’에 대해 논했고, 학자인 리즈바나 브래들리(Rizvana Bradley)와 함께 공동의 연합에서 필수적인 윤리적 전제로서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위트레흐트 대학의 젠더 연구 분과와 ‘정서적인 공동체’에 대해 다뤘으며, 아워 뉴 이코노미(Our New Economy)와 예술가 펌커 헤레흐라벤(Femke Herregreven)과 함께 비자본주의적 경제적 실천을 위한 이니셔티브 연합에 대해, 그리고 예술가 벤델린 판 올덴보르흐(Wendelien van Oldenborgh)와 네트워크 CRIDE(Critical Decoloniality)의 학자 롤란도 바스케스(Rolando Vázquez)와 연합체 결성의 과정에서 (비)가시적으로 말하기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각 세션에서 우리는 예술과 커먼에 대한 집단적 연구를 위해 개방된 공간이 가질 수 있는 형태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감행했다. 짧은 프레젠테이션, 강연, 예술 프로젝트가 이 다양한 세션의 중심이었으며 각 세션은 다음 단계를 구동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컬렉티브의 논의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이것은 커뮤니티와 예술가,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가 만드는 관계에서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커먼의 학교»는 이런 맥락에서 공유된 고민을 둘러싼 참여자들의 그룹이 모이는데 있어 현재진행형의 실험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함께 연구하고 이 쟁점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인 진보를 이룰 것인지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연구의 시간이기도 하며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의 팀에게 있어 공공 예술 기관의 서비스 정신을 다시 양산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순간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집단적 배움이다.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있었던 지나온 여정을 돌아본다.

테르베이데 농가와 같은 장소와 지속적으로 교류함과 동시에
커먼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던, 배움과, 이미 배운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순간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

A large farmhouse on a remaining plot of once-vast farmland has been neglected for over a decade.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new urban-residential area Leidsche Rijn (Utrecht, the Netherlands), the Terwijde farmhouse is now seen as a part of Utrecht's agricultural heritage. In 2017, Leidsche Rijn – based interdisciplinary art collective The Outsiders and a team from Utrecht-based art institution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gained access to this otherwise non-breathing farmhouse and have been hosting and facilitating artistic and commoning activities there with the multi-year project and study line called *Center for Ecological (Un)learning*, a long-term co-initiative by The Outsiders and Casco to cultivate art-ecological practice in this new part of the city of Utrecht.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is a contemporary art institution that has been active in Utrecht for nearly 30 years; in fact, 2020 marks our 30th anniversary. After a journey of several years,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artistic research program *Composing the Commons* (2013 – 2016) and intensive practices of collectivity both within and beyond the institution's walls, the institution relaunched as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in 2018, shifting not only its name but also its modus operandi from the original Casco Office for Art, Design, and Theory.

The reason for this shift is rooted in the understanding that changes in biodiversity and climate are becoming more palpable, and increasing social inequality, fragmentation, and precarity of life mark today's headlines, the result of more than half a century dominated by money, capital, and individualism. At Casco Art Institute, we believe in other values such as the joy to care and share, cooperate, and live and work together, values which have nevertheless persisted and are crucial for necessary social change in our time. It is

로사 파르텐코퍼르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커먼을 향하여 큐레이터

큐레이터이며, 연구와 배움, '공동 되기'를
위해 자기-조직화한 «커먼의 학교(School in
Common)»의 공동설립자 겸 기획자다. 현재
«커먼의 학교»는 공동의 연구를 위해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의 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통합되어 왔다.

로사 파르텐코퍼르는 위트레흐트에 있는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커먼을 향하여의

for this reason that Casco Art Institute has brought art and the commons together and is dedicated to sustaining and cultivating the commons through art.

This is shared in a yearly program with several *School in Common* sessions for collective study and planning, two exhibitions with an accompanying program of events, one annual Assembly for commoning art institutions, and various activities within and outside the four walls of Casco Art Institute as part of our extramural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each of these activities, we work with art that brings new questions, sensations, forms, and imagination on the commons, as well as those systems and actors that threaten or limit them.

When we speak about the commons, we refer to resources from nature to culture that are co-managed or generated by self-organizing communities. The relationships in these communities are imbued with values such as maintenance, care, sharing, and cooperation. Thus, we can understand the commons as a compass for social change in contexts ranging from neighborhoods to workspaces, and from farms to natural ecosystems. The commons fill the gaps between nation-states and markets and suggest a new system beyond them.

The work of the Outsiders at the Terwijde farmhouse, in collaboration with other artists, neighbors, and the shifting team at Casco Art Institute, is one of these extramural activities that attempt to bring commons to life through art. It demonstrates how art and artists can show different ways of living and working without the pursuit of money; how art questions, relates with, and/or intervenes in the world beyond rules or discipline, and how it can create alternative languages and tools that communicate our vision, senses, and feelings.

In a short period of time, neighbors, artists, and communities local to Leidsche Rijn self-organized and proposed activities related to ecology, food production, heritage, and the agricultural history of the area, all to reanimate the Terwijde farmhouse. These activities ranged from a local beer brewing group that gathered on a monthly basis, workshops for children on collectively building playgrounds, or engaging in contemporary practices of ‘archeology,’ foraging for herbs and mushrooms in the increasingly urbanized neighborhood, a second-hand clothing store, musical instrument making, and more. Each of these individuals and groups, in their own way,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and care of the farmhouse by building new infrastructure, cleaning, and hosting during opening hours.

In this talk, the story of the Terwijde farmhouse as an exemplary site for art and the commons is taken as a common thread to weave together the various programmatic structures of the Casco Art Institute and the ways in which they offered moments for collective study and (un)learning. From the extramural activities at the farmhouse, to an exhibition program entitled *Erfgoed (Agricultural Heritage and Land Use)* (September 15 – October 21, 2018) developed with the commoners of Leidsche Rijn in the exhibition spaces at Casco’s headquarters in the city center of Utrecht.

In the first so-called *Study Meeting* at Casco Art Institute, we came together with the commoners of Leidsche Rijn to reflect on the past activities and speculate on the future of the farmhouse and our continuing work in the area. It was a moment where all those involved, as well as experts from the historical association of Leidsche Rijn, researchers who have operated in the area, and municipal employees could share their desires for the future. This meeting was the first

of many public moments for collective study, speculating, and planning, where study is defined as collective, critically constructive, and non-disciplinary forms of learning and unlearning; it enables but also is enabled by artistic practices, and it is a core form of commoning towards affirming life and our ways of living together.

Since the conversation around the future of the Terwijde farmhouse, the *Study Meetings* have been renamed the *School in Common* program. This name is taken from a project initiated by curator and educator Alen Ksoll and organizer and curator of language and dissemination at Casco Art Institute Rosa Paardenkooper. Originally developed as a self-organized school for studying, learning, and being in common, it now takes the form of quarterly moments for collective study and planning on different questions and concerns around art and the commons, in a program developed with different communities within and outside of the field of art, as well as with (an) artist(s).

School in Common sessions that have followed have looked at notions such as ‘commonist aesthetics’ with writer and scholar Pascal Gielen and publisher Valiz, and later with artists Jing Y. Ng and Song Yi and curator and scholar Zoénie Liwen Deng; interdependency as a necessary ethical principle in inter-communal alliances with scholar Rizvana Bradley and the ‘Affective Communities’ of the Gender Studies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Utrecht; coalitions for initiatives of non-capitalist economic practices with the organization Our New Economy and artist Femke Herregraven, and (in)visible modes of speech in processes of coalition building with artist Wendelien van Oldenborgh and scholar Rolando Vázquez of the network CRIDE (Critical Decoloniality).

In each of these sessions, we have taken on different

attempts to experiment with the form this open space for collective study on art and the commons can take. Short presentations, lectures, and artistic projects have been at the core of different sessions, which always end in a collective discussion steered towards planning for the next steps. These can be the next step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y, the artist(s), and Casco Art Institute, but also concrete proposals for follow-up meetings and collective projects. *School in Common* is in this sense ongoing experimentation in gathering groups of committed people around a shared concern. It questions how we can study those concerns together and make concrete steps in working on them. It is as much a moment of study in itself, as well as ongoing collective learning for the team at Casco Art Institute in finding ways to create these moments without reproducing the service mentality of public art institutions.

Looking back on this trajectory from the first meeting on the Terwijde farmhouse to now, how can we propose other moments of learning and unlearning at Casco Art Institute which allow for a deep understanding on the commons and art whilst continuing to engage with exemplary sites such as the Terwijde farmhouse?

Rosa Paardenkooper
Curator of Language and
Dissemination,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Rosa Paardenkooper is curator
of language and dissemination at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in Utrecht and is the co-
founder and organizer behind *School
in Common*, a self-organized school
for studying, learning and being in
common, currently integrated in the
programming of Casco Art Institute as
quarterly moments for collective study
and planning.